

3) 신사참배의 강요와 미국 선교사들의 철수

신사참배의 강요는 한일합방 직후 축절(祝節) 때마다 일본 천황 사진에 최경례(最敬禮)를 하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1921년 당시 전국의 선교사들은 진정서를 내는 등 일본 천황에 대한 경례가 기독교에서는 전연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1925년 10월 15일 서울 남산 중턱에 조선신궁이 준공되어 여기에 일본의 천조대신(天照大神)과 명치천황(明治天皇)을 진좌(鎮坐)한 뒤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일제는 한국교회에 핍박과 압력을 계속 가하는 한편, 손쉬운 교과부터 굴복시켰다. 그러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던 장로교회를 굴복시키기 위해 당시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주기철·한상동·이기선·김상두 등의 목사를 예비검속하였다.

한편 순천노회는 1938년 4월 25일 구례읍교회에서 제22회 정기회의가 열린 바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몇몇 일제 동조자에 의해 신사참배가 결의되었다. 그러나 이는 곧 잘못된 결의라 하여 순천노회 소속 총대들은 제30, 31회 전국 총회(總會)에 불참석할 것을 결의하고 신사참배에 대한 독자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때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 전개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여수나병원의 손양원 목사와 순천중앙교회의 박용희 목사였다. 마침내 일제는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열린 제27회 전국 총회 때 일본 경찰관 97명을 동원, 187명의 총대 사이에 앉게 하고 강제로 신사참배를 결의토록 하고, 곧바로 실시케 하였다. 이는 뒷날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회를 분열케 하는 원인을 제공해주었다.

그뒤 일제는 한국교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민족정신의 마지막 보루인 기독교를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를 외국 선교회로부터 이탈시켜 일본적 기독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한국인 교회 지도자 300여 명을 전국에서 예비검속으로 체포, 구금하였다. 이때 순천노회에서는 박용희·손양원·김정복·김형재·오석주·나덕환·선재련·김순배·김형모·조상학·양용근 등의 목사를 비롯하여 황두연·박창규·선춘근·김원식 등의 장로와 유재학 집사가 체포되어 3~4년의 옥고를 치렀다. 이들 가운데 양용근 목사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943년 12월 5일 광주형무소에서 순교하였다.

그리고 이때 외국 선교사들은 일본의 천조대신을 섬기는 것은 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할 뿐이고 일본 천황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제는 외국 선교사들에게 스파이 혐의와 예수 재림과 말세론을 주장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하며, 특히 한국의 민중을 선동하고 치안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죄목으로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추방하였다. 이로써 1940년 10월 미국 총영사 마쉬는 선교사 철수령을 내렸고, 외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한국을 떠나거나 국내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한국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전국에서 가장 인술(仁術)을 자랑하며 복음전도에 크게 이바지하던 순천 알렉산병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으며, 순천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도 순천을 떠나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일제는 인위적인 방법과 강압에 의해 친일파 지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을 동원하여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통합하여 한국교회를 일본교회에 예속시키기로 결의하고, 1945년 8월 초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창립하였다.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결의에 반대하는 한국의 목사·장로를 비롯하여 애국지사들과 한글학회 회원에 이르기까지 명단을 만들어 이들을 검거, 1945년 8월 18일 같은 날 모두 죽일 장소와 그 시체를 묻을 장소까지 계획을 세워 곧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기 3일 전 해방이 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순천노회는 순천에서 광양으로 넘어가는 조령의 '반상재'였다고 한다.

